

사회과학적 융합을 통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조사

문소라*, 김명철, 이민수, 김남재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Study on Attitude of the Elderly among College Students in Physical Therapy through social science convergence

So-Ra Moon*, Myung-Chul Kim, Min-Su Lee, Nam-Jae Kim
physical therapy, Eul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적 융합을 통한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분석하여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개발 및 노인 물리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1027명의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노인관련 경험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anders(1984)의 의미분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t-test, ANOVA와 Scheff test를 사용하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의 긍정도는 46.0%였다. 30대 이상 집단에서 51.48%로, 남학생 집단이 47.52%로 더 긍정적이었다. 노인관련 강의수강 경험이 없을 경우 와($t=-2.035, p=0.0042$)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t=2.951, p=0.003$). 학생들의 노인관련 교육과정에서 노화현상을 긍정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도록 강의 및 실습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물리치료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개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Key Words : 노인, 물리치료, 태도, 연령, 학생

Abstract Purpose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qualitatively enhance physical therapy for them by analyzing Korean students' attitudes of the elderly through social science convergence. Methods is a total of 1027 male/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were selected to examine the attitudes of the elderly. T-test, One-way-ANOVA and Scheff test were used. Result is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was 46.0%. 51.48% in the population over 30, and 47.52% in the male group was more positive. In addition, when the elderly with no experience in the relevant lecture course ($t = -2.035, p = 0.0042$) in elderly and when the living experience more positive attitudes ($t = 2.951, p = 0.003$). Conclusion is education of students in the process of aging of the elderly in a positive standpoint, lectures and hands-on so that you can see the need to change direction.

• Key Words : Elderly, Physical therapy, Attitude, Age, Student

*교신저자 : 문소라(sit1109@naver.com)

접수일 2015년 8월 7일 수정일 2015년 9월 4일 게재확정일 2015년 10월 20일

1. 서론

UN에 따르면 한 나라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 고령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2018년에는 약 14.3%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약 20.8%로 초 고령 사회에 각각 도달 할 전망이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 없는 일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전되는데 115년, 14%에서 20%로 변화하는 데에 40년이 걸렸고 미국이 각각 72년, 16년이 소요되었으며 영국은 47년과 44년, 독일도 40년과 38년이 그리고 일본은 24년과 12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과 7년이 걸려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8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결국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건강문제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며 아울러서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야만 한다. 병원이나 노인시설 등 현장에서 이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 건강관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분야와 대책으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꼭 필요한 영역으로서 대두되고 있다[2].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사회적으로 고령 사회에서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될 것이며 그에 따라 물리치료 분야의 주 환자(고객) 중 노인의 비율이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서비스 제공자와 노인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고 긍정적, 건설적 관계로의 발달을 방해하며 결국 서비스의 질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3].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노인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하고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요양서비스에 임할 경우 그 대상자인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인이 자신을 비하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함은 물론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궁극적인 가치에도 손상

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노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서비스의 질을 근원적으로 제고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4].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서 경기도 성남, 용인, 수원, 안산, 여주, 화성에 소재한 8개 대학교(3년제, 4년제)의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남, 여학생 총 1035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9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인 특성과 노인과의 관련경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나이, 성별, 학년, 주요성장지역, 종교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노인과의 관련경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인관련 전공 및 교양강의 수강여부, 조부모의 생존여부, 노인과의 동거경험, 노인대상 자원봉사여부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란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지, 지각, 신념, 가치관, 감정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anders(1984)의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를 사용하였다[3,5,6,7]. 이 도구는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문항에서 Likert 7점 척도(1: 매우 부정적~7: 매우 긍정적)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응답자들은 개인적으로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느낌 또는 믿음과 생각에 따라 각 문항에 답을 하게 된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이 도구의 타당도는 Sanders 등(1984)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다. 이 척도는 7점 척도이므로 각 문항의 점수가 3.5~4.5까지가 중립적인 태도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총점으로는 70(3.5×20) ~ 90(4.5×20)사이의 점수가 중립적인 범위를 나타낸다. 점

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최저 점수는 20점(가장 부정적)이고 최고 점수는 140점(가장 긍정적)이 된다. 의미가 반대로 되어있는 7문항(3,6,7,10,12,15,18)을 제외한 13문항(1,2,4,5,8,9,11,13,14,16,17,19,20)은 점수를 역으로 주어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2.3 자료수집

설문지는 수업시작 전, 후에 실시 집단조사로 실시한 후 회수하였으며 설문지의 회수율은 99%였고 문항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거나 불량하게 작성한 것을 제외하여 사용된 질문지 수는 1027매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를 하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기술적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노인관련 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 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관한 기술 분석

전체 응답자는 총 1027명으로 우선 조사대상자의 학교별 분포를 보면 A대학교 26.6%(273명), B대학교 14.9%(153명), C대학 23.8%(244명), D여자대학 9.6%(99명), E대학 4.5%(46명), F대학교 4.6%(47명), G보건대학 10.5%(108명), H대학 5.6%(57명)로 총 8개 학교로 나누어지며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학생이 64.8%(665명), 남학생이 35.2%(362명)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 수가 우세한 보건계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0대 초반(20~23세) 74.4%(763명), 20대 중반(24~26세) 18.0%(185명), 20대 후반(27~29세) 4.3%(44명), 30대 이후(30~37세) 1.4%(14명)로 20대 초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5.2%(366명), 2학년 31.5%(323명), 3학년 21.0%(216명), 4학년 11.9%(122명)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주요 성장

지역 분포는 도시 88.9%(913명), 농어촌 11.1%(114명)로 도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종교 분포는 기독교 30.3%(311명)가 무교 52.1%(535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천주교 8.1%(83명), 불교 7.2%(74명), 기타 2.3%(24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General Characteristic	contents	physical therapy (n/%)	
school	A university	273(26.6)	
	B university	153(14.9)	
	C college	244(23.8)	
	D woman college	99(9.6)	
	E college	46(4.5)	
	F university	47(4.6)	
	G Health College	108(10.5)	
	H college	57(5.6)	
gender	male	362(35.2)	
	female	665(64.8)	
age	20~23	763(74.4)	
	24~26	185(18.0)	
	27~29	44(4.3)	
	30~	14(1.4)	
grade	freshman	366(35.6)	
	sophomore	323(31.5)	
	junior	216(21.0)	
	senior	122(11.9)	
growth place	city	913(88.9)	
	farming&fishing village	114(11.1)	
religion	follow	Christianity	311(30.3)
		Buddhism	74(7.2)
		Catholic	83(8.1)
		etc	24(2.3)
	none	535(52.1)	

3.2 노인관련 경험에 관한 기술 분석

조사대상자의 83.2%(854명)가 조부모가 살아 계심, 16.8%(173명)가 살아 계시지 않음으로 응답하여 조부모가 살아 계신 대상자가 더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55.5%(570명)가 노인과 동거경험 있음, 44.5%(457명)가 동거경험 없음으로 응답하여 동거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36.6%(376명)은 노인관련 강의 수강경험 있음, 63.4%(651명)은 경험 없음으로 응답하여

노인관련 강의수강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약 2배 더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74.8%(768명)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5.2%(259명)이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노인 대상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약 3배 더 많았다.

3.3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기술 분석

3.3.1 조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항목별 태도 수준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의 긍정도는 46.0%(64.4점)로 중립적인 범위(50%~64.2%)를 기준으로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인 물리치료과 학생들은 노인의 인내심에 가장 긍정적 태도를 보인 반면에, 노인의 보수적임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이 중립적인 범위(3.5~4.5점)를 벗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은 총 20개의 항목 중에서 1개 문항, 즉 “인내심 있는(4.51점)”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은 8개 문항으로 “보수적인(1.54점)”, “비생산적인(2.37점)”, “불평이 많은(2.41점)”, “매력적이지 못한(2.61점)”, “융통성이 없는(2.63점)”, “슬프며(2.64점)”, “비관적인(2.84점)”, “아픈(2.9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조사대상자들은 노인에 대해 인내심이 있는 존재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수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불평이 많고, 매력적이지 못하며, 융통성이 없고, 슬프며, 비관적이고, 아픈 존재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On the presence of the elderly experience

Relevant experience in the elderly	contents	physical therapy(n/%)
Surviving grandparents	Existence	854(83.2)
	nonexistence	173(16.8)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Existence	570(55.5)
	nonexistence	457(44.5)
Volunteer for the Elderly	Existence	768(74.8)
	nonexistence	259(25.2)
Attend lectures related to the elderly	Existence	376(36.6)
	nonexistence	651(63.4)

<Table 3> Positive attitudes of those surveyed also

Contents	The average score	Affirmation (%)
Wise / Foolish	3.06	57
friendly / Unfriendly	3.67	48
Ignorant / Knowledgeable	4.44	63
Happy / sad	4.36	38
Reliable / unreliable	3.28	53
Selfish / generous	4.33	62
Non-Active / Active	3.37	48
Tidy / untidy	3.96	43
Favorable / unfavorable	3.44	51
Boring / interesting	3.44	49
Productive / unproductive	4.63	34
Sick / healthy	2.92	42
Good / bad	3.41	51
flexible / inflexible	4.37	38
Dependent / independent	3.47	50
Progressive / conservative	5.46	22
Attractive / unattractive	4.39	37
No patient / Be patient	4.51	64
Optimistic / pessimistic	4.16	41
No complaints / many dissatisfaction	4.59	34

(Mid-range: 3.5 to 4.5, A higher score indicates a positive attitude)

3.4 일반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학년, 성장지역, 종교 특성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관련이 없고, 성별, 나이 특성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나이 특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에서는 3.225점(46.07%), 20대 중반에서는 3.22점(46.00%), 20대 후반에서는 3.37점(48.08%), 30대 이상에서는 3.60점(51.48%)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 집단(3.37점)과 30대 이상 집단(3.60점)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인 범위 내에 있었으나 약간 긍정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20대 초반 집단(3.23점)과 20대 중반 집단(3.22점)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30대 이상 집단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753, p=0.042).

성별 특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집단은 3.33점(47.52%), 여학생집단은 3.19점(45.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노인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나,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노인에 대해 더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736, p=0.000$).

3.5 노인관련 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3.5.1 노인관련 강의수강 여부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강의수강 경험 있는 경우(3.19점)보다 강의수강 경험이 없는 경우(3.26점)가 태도 점수가 높아 노인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을 때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035, p=0.042$).

3.5.2 노인과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3.18점)보다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3.28점)가 태도 점수가 높아 동거경험이 있을 때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951, p=0.003$).

4. 결론

4.1 조사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도는 46.0%(64.4점)로 중립적인 범위(50%~64.2%)를 기준으로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료시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8], 간호과와 사회복지과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9,10]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 의사, 간병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나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11].

4.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4.2.1 연령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753, p=0.042$).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12]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연령이 적을수록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13]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4.2.2 성별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나,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노인에 대해 더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736, p=0.000$).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4], 농촌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6]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일치하였다. 반면, 가정 봉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13], 그 밖에 성별에 따른 태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17]. 이는 보건대학의 특성상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4.3 노인관련 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4.3.1 노인관련 강의 경험

강의수강경험이 있을 때 노인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143, p=0.032$).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여성노인에 대해서 노인관련 강의수강 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 이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8]. 이는 노인관련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인 노인 보다는 아프고 의존적인 노인을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4.3.2 노인과의 동거 경험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을 때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t=2.951$, $p=0.003$). 선행연구에서도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을시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13,19,20]. 반면, 노인과 동거하지 않았을 때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하였다[18].

5. 제언

기존의 선행 논문을 살펴보면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부정적이었다. 또한 간호사, 의사, 간병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반면, 청소년과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사대상자에서 강의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인 노인보다는 아프고 의존적인 노인을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 정상적인 노화현상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강의 및 실습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유사체험하기(고령친화센터), 노인과 함께 수업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하기,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노인전문가 초청강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노화 및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물리치료학과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화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첫 번째 연구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개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REFERENCES

- [1] S. J. Bin, "Studies on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 mainly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2004.
- [2] Campbell ME. "Study of the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Nursing Research, Vol. 20, pp. 147-150, 1971.
- [3] G. H. Choi,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Attitude on the Elderly in the Geriatric Facilities and Job Satisfaction by Care Helpers on the Quality of Service",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2010.
- [4] Y. D. Choi, "A Study on Attitudes and Knowledge of the Elderly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and Social Work", Ph.D.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2008.
- [5] K. M. Eom, "Functional performance in older adults", Yeongmunsa. 2004.
- [6] J. L. HAN,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0, No .3, pp. 115-127, 2000.
- [7] J. L. Han,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3, No. 4, pp. 181-194, 2003.
- [8] Y. S. Im,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a general hospital nurses", Ph.D.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2004.
- [9] J. H. Kim, "Attitudes Toward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 Among Baccalaureate Junior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8, No, 4, pp. 601-610, 2007.
- [10] J. H. Kim,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Older People", Ph.D.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2011.
- [11] M. H. Kim, "Baccalaureate Social Work Student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Ewha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ocial Science Research Publications, Vol .8, pp. 69-89, 2002.
- [12] Y. J. Kim, "Adolescent '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Exploring the relations between adolescent

s' perception and behavioral attitude toward the elderly",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9, No. 6, pp. 173-183, 2001.

[13] H. J. Le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mong nurse, doctor, care-helper",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1.

[14] H. W. Lee, "A Study on the Home Helpers' Knowledge about Facts on Aging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Korea",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Vol. 43, pp. 358-384, 2000.

[15] H. W. Lee, "A Study on the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Korea",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Vol. 39, pp. 289-299, 1999.

[16] Y. M. Lee, "Study on Welfare Professional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Ph.D.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2013.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lderly Statistics.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p. 8-17, 2011.

[17] E. J. Song, "Nurses and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Ph.D.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2003.

[18] S. J. Yang, "A General Hospital Docto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Ph.D. dissertation, Hallym University, 2003.

저자소개

문 소 라(So-Ra Moon) [학생회원]



- 2014년 2월 ~ 현재 :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석사과정 재학
- 2015년 3월 ~ 현재 : 부천미소요양병원 근무

<관심분야> : 물리치료, 노인, 치매

김 명 철(Myung-Chul Kim) [중신회원]



- 2003년 2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 학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졸업(이학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 학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졸업(이학박사)

- 2007년 2월 : 수원여자대학 물리치료학과 교수
- 2009년 2월 ~ 현재 :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신경계 물리치료, 노인 물리치료, 치매

이 민 수(Min-Soo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학사
- 2011년 2월 :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사
- 2014년 2월 : 을지대학교 대학원 물리치료학 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물리치료 전공 박사과정
- 2011년 3월 ~ 2015년 7월 : 참병원 재활부 물리치료사

<관심분야> : 물리치료, 환경심리, 심리 물리치료

김 남 재(Nam-Jae Kim) [학생회원]



- 2010년 2월 : 동신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사
- 2010년 2월 ~ 2011년 10월 :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물리치료사
- 2012년 8월 ~ 현재 : 사랑플러스병원 재활센터 팀장

<관심분야> : 물리치료 검사 장비, 근골격계 질환, 치료기